

교황 레오 14 세 – 희망과 일치의 다리를 잇는 사목자 교토교구의 선교사목을 올리는 교황의 비전

■ 머리말

교황 프란치스코로부터 교황 레오 14세의 교황직의 계승은 복음의 평화와 대화의 정신을 이어받는 교회에 있어서, 희망으로 가득 찬 개막이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8일, 교황 레오 14세는 취임 메시지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며, 전임교황에 감사와 분단을 넘어선 세계의 일치에의 바람을 강하게 표명하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느님과 서로 손잡고 나아갑시다.”라고 호소하며, 교황 프란치스코의 ‘전진하는 교회’와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현대의 숨결을 불어넣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의 발걸음을 새롭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 교황 레오 14 세의 초상

1. 교황명 「레오」에 담긴 의미

레오(Leo)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사자를 의미하고, 성서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용기, 위엄, 수호자의 이미지를 가지며, 교황명으로 영적, 상징적인 무게감이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 이름을 선택하며, 근대 가톨릭교회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최초로 다룬 교황 레오 13세(1878~1903년)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회칙 『새로운 사태』를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가톨릭 사회교리의 기초를 쌓으신 ‘사회교리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정한 것은 교황 레오 14세의 사목적인 눈길, 곧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서 사회의 아픔을 마주하고자 하는 교회의 자세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In Illo uno unum)

교황 레오 14세의 모토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127편의 주해에서 인용하며,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목표로하는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가리키고, ‘우리는 하나’란, 민족과 문화, 입장의 차이를 가르치지 않고 하느님 품에서 인류가 이어지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페루의 20년에 걸친 선교활동을 통해서 복음의 힘이 다문화, 다민족의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하는 가능성에 마음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민과 난민, 사회의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친교 안에서 길러진 이 시선은 교회가 ‘하느님의 가족’으로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되어야만 하는 신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문장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백합 꽃과, 교황님이 소속하고 계신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문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리아와 같이 하느님의 이끄심에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자세와,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정신에 뿌리내린 교회의 일치와 친교를 중요하게 여긴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기도 안에서 그 사목적 사명을 다하는 교황의 모습이 문장의 상징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시대의 교회의 재구상

3. 교황님의 ‘다리’의 영성

교황 레오 14세는 2025년 5월 취임직후부터 ‘일치’, ‘다리를 잇다’, ‘희망’이라는 테마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는 하느님의 그 사랑에 도달하도록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라는 말씀에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으라”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이 깊어지는 시대에 있어서도, 교회가 대화를 택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자비와 평화의 다리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교황님은 “평화는 마음 안에서부터 형성 되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16일 첫 외교단과의 회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는 평화가 제도적인 질서나 사회의 구조를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선택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 뿌리내린 날마다의 대화와 공감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신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황님에게 있어서 ‘다리’란 단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잇는 사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 빈곤, 환경 파괴 등 현대의 깊은 아픔에 대해서 교황님은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맞서고 어둠 속에 있어도 복음의 빛을 힘있게 비추고자 합니다.

4. 하느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교황 레오 14세가 이야기하는 ‘다리를 잇는 교회’라는 비전은 ‘만남과 대화의 교회’라는 근간에 지탱받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하느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장소’라고 보고, 그곳에 하느님의 시선과 사랑이 머문다고 말씀하셨습니다(2025년 8월 6일 일반알현). 하느님이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신다는 신뢰야말로, 교황님의 사목적 시선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느님의 이끄심에 의해 싹트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고독이나 고통 가운데에서 보호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걸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의 나약함 가운데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십니다.’(2025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라고 말씀하시며, 하느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한계와 고통 가운데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란 단순히 가르침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발걸음에 함께하며 하느님의 사랑의 현존이 되는 만남을 기르는 공동체입니다. 교황님은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희망과 대화의 다리가 이어지고, 분단과 대립의 가운데에 있더라도, 하느님의 평화가 확실하게 부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희망

5.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일하심을 신뢰

교황 레오 14세는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리교육에서, ‘희망’은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이나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즉위 후 첫 일반알현 교리교육에서 교황님은 마태오 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며, 하느님께서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교황님께서는 희망이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결과에 좌우되지 않고, 하느님의 약속에 응답하며 걸어가는 마음의 자세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진정한 용서는 회심을 기다리지 않고, 용서받기도 전에 먼저 자신을 조건 없이 받은 선물입니다(2025년 8월 20일 일반알현 교리교육)’라는 가르침에는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깨닫기 전에 먼저 일하기 시작하시고, 응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은총으로서 아낌없이 부어진다는 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희망이란 하느님의 사랑을 깊게 파고들어 받아들이는 영적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 13장의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를 들면서, “현실의 겉질을 파헤치고 깨뜨릴 때, 즉, 표면 아래로 파고들 때, 희망은 다시 불타오릅니다.(2025년 9월 6일 교리교육)”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보물과 만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의 깊숙한 곳에 있는 하느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필요가 있고, 진정 그 신뢰야말로 참된 희망을 기른다고 가르칩니다.

게다가, 2025년 10월 15일의 일반알현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르거나 변하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부르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희망이 솟아납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목마름을 치유하고, 길을 비추시는 분이시며, 항상 고요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황 레오 14세는 이 가르침 가운데서 일관되게 처음부터 부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향한 신뢰야말로 우리들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빛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 성체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회복의 힘

2025년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의 강론에서, 교황님은 루카복음 9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로 드시며, ‘군중이 스승이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황량한 곳에 날이 저물기 시작하고,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12절 참조). 사람들의 굶주림과 해가 저무는 것은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위협하는 한계의 표징입니다. 인간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하루가 끝이 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결핍이나 시간의 끝이 하느님의 자비와 나눔의 필요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를 인용하며, 성체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하지만 만족시켜 주는 빵이면서 결코 고갈되지 않는 빵, 먹을 수는 있지만 다 먹을 수 없는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체는 지친 마음과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며, 하느님의 생명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성체를 모실 때마다 새로운 은총이 부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님은 신앙생활 속에서 피곤과 공허를 느끼는 때야말로, “성체로 돌아선다면, 언제든지 치료와 힘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며, 성체가 희망의 원천이라고 가리키셨습니다.

성체는 제단에서의 기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현실이라고 교황님은 가르치십니다(2025년 8월 6일 일반알현). 성체의 은총은 전례의 틀을 넘어서, 일상의 다정함, 용서,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의 실천 속에 고요히 숨쉬고 있습니다. 성체는 하느님의 생명이 솟아나는 샘과 같으며, 그 샘에 모이는 사람은 치료와 희망을 받고, 다시 걸어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7. 젊은이 : 교회의 미래를 짊어진 여행자들

교황 레오 14세는 희년에 ‘청년의 축제’에서 2025년 8월 2일 저녁무렵의 ‘청년과의 대화’에 참석하시며 젊은이를 교회의 미래를 짊어진 바꿀 수 없는 존재로서 깊게 신뢰하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젊은이의 불안과 물음, 갈등을 부정하지 않고, 이것들을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이끄는 영적인 여행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며, 그들 안에 머무는 빛과 가능성을 깨

단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씀 “당신은 내 안에 계셨지만, 나는 밖에 있었습니다.”를 인용하며, 하느님의 생명은 모든 젊은이들 안에 숨쉬고 있다고 떠올리게 해주며, 그들이 그 목소리에 귀담아들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저녁기도에서 교황님은 우정은 고독이나 단절을 넘어서는 끈이며, ‘우정은 평화를 향한 길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음날 8월 3일의 ‘삼종기도’에서도 분쟁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연대를 나타내시며, ‘여러분은 지금과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폐막미사에서 교황님은 젊은이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위대한 일을, 거룩함을 지향해주세요. 작은 일에 만족하지 마십시오.”라고 격려하며, ‘위에 있는 것(콜로새 3,2)’을 찾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교황님의 평화를 향한 시선

8. 무력에 저항하는 평화의 사도

교황 레오 14세는 취임 이후 일관되게 ‘평화의 실현’을 호소하고, 무력에 의한 해결을 명확하게 부정해 왔습니다. 2025년 6월 22일 ‘낮 삼종기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위태로울 때 ‘멀리 떨어진’ 분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지리적 거리를 넘어선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민족들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무력을 통한 승리는 그 무엇도 어머니들의 고통과 아이들의 두려움, 그리고 빼앗긴 미래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교회는 무기가 아닌 말씀을 택하고, 분단이 아닌 대화에 의한 다리를 잇는 존재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평화를 향한 시선은 202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보낸 ‘원폭투하 80주년을 맞아 보낸 메시지’에도 명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핵무기는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을 훼손하고 창조의 존엄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무기를 내려놓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향한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기억의 상징’이라고 부르신 것을 인용하시며, 교황 레오 14세는 정의, 형제애, 공동선에 뿌리내린 글로벌한 윤리의 구축을 세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9. 성령에 봉사하는 교회

교황 레오 14세의 평화를 향한 바람은, ‘성령에 봉사하는 교회’라는 비전과 이어져 있습니다. 2025년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 강론에서 “복음화는 세상에 대한 인간적 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 나라 때문에 변화된 인생에서 흘러나오는 무한한 은총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이 활동하시는 곳으로서, 겸허하게 순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에 봉사할 때에, 평화는 이념이 아니라 기도와 만남 가운데 숨쉬는 현실이 되고, 이 성령이 활동하시는 곳에 우리들은 다리를 잇는 사람으로서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분쟁이 아니라 일치를, 지배가 아니라 봉사를 택하는 길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상처입은 세상에 치료와 희망을 가져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강림 대축일의 미사에서, 교황님은 “무엇보다 먼저 가르쳐주시고 되새기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모든 가르침의 한복판이자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신 사랑의 계명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성령께서 우리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무관심과 미움의 벽을 허무는 힘을 주시고, 사랑과 평화로 가득한 세계를 만드는 힘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교황의 비전과 교토교구

10. 희망의 다리를 잇는 선교사목

교황 레오 14세가 이야기하는 ‘일치’, ‘다리를 잇다’, ‘희망’이라는 테마는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지향하는 교토교구의 공동선교사목의 발걸음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요청은 신앙에 뿌리내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보고, 새롭게 쌓아가자는 초대이며, ‘사회와 함께 걷어가는 교

회'(교토교구 비전 1981년)를 강력하게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교구 내에서는 신자, 수도자, 사제가 역할과 입장을 넘어서서, 공감과 신뢰, 매일의 실천을 통해서 서로 의지하며, 협력하는 관계가 길러졌습니다. 이러한 관계성은 교회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복음을 근거로한 친교의 공동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를 잇는 교회'의 역할은, 교토교구가 뜻을 둔 다문화 공존의 실천과 깊게 맺어져 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신앙의 다리이며, '희망은 이어주는 것(2025년 6월 14일 희년의 교리교육)'이라는 교황님의 말씀에도 통합니다.

이 영적인 다리 만들기는 교토교구의 각 본당에서 실천하고 있는 다문화, 다언어의 공존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성당에 모여 같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같은 성체를 모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희망의 다리'로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교토교구의 발걸음은 분단이 아닌 친교를, 배제가 아닌 받아들임을,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도록 선택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역 안에서 고요히, 하지만 확실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11.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로

교토교구는 2021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시노드의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조금씩 확실한 열매를 길러왔습니다. 고령자, 외국국적의 신자, 젊은이, 장애인 등 지금까지 목소리가 묻혀왔던 사람들을 향한 배려를 소중하게 여기며, 교회 안에 '귀를 기울이는 문화'가 길러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상황에서는 실천이 한정된 범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의 발걸음은 대화와 참가의 고리를 더욱 넓히고, '함께 걷는 교회'로서의 성숙을 지향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일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초대받고,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존중받는 곳이 되도록 기도와 실천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노드에서 권고된 나눔과 경청을 심화하는 '성령 안에서 대화하기'가 모임과 연수에서 실천되어 왔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대화하기'는 단순한 의견교환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귀기울이

면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기도에 뿌리내린 식별과 서로의 존엄을 소중히 하는 자세가 숨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걸음은 ‘사회와 함께 걷는 교회’라는 교토교구의 비전을 공동선교사목과 대화의 실천을 통해서 조금씩 구체화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한 확실한 한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12. 마리아와 함께 희망의 여정

교황 레오 14세는 “교회의 풍요로움은 곧 마리아의 풍요로움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침묵과 신뢰로 가득한 마리아의 신앙이 교회의 영적 원천임을 가리키셨습니다(2025년 6월 9일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미사 강론). 십자가 곁에 서서 제자들과 기도를 함께 하신 마리아의 모습은 희망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범입니다.

희망이란, 이념도 일시적인 감정도 아니고, 인생의 이야기 속에 고통히 숨쉬고 있습니다. 기도와 봉사, 고통과 기쁨과 같은 매일의 단편이 하느님의 생명에 얹혀갈 때, 희망은 모습을 갖추고 빛이 되어 드러납니다. 교황님의 ‘희망은, 이어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하느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끈, 그리고 교회의 친교가 희망 속에 자라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리아를 따라 ‘희망을 지닌 사람’으로서 신앙의 여정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느님의 약속을 품고, 신뢰를 가지고 각자의 인생의 단편을 하느님의 생명으로 결합시키며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발걸음 가운데에 싹트는 희망은 기도가 되고, 봉사가 되며, 용서와 기쁨의 빛이 되어 세상으로 퍼져 나아갑니다. 지금, 저는 사람들을 잇는 희망을 마음에, 교토교구 안에서 기도와 의지하는 나날이 풍성히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 년 1 월 1 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가톨릭 교토교구 주교
✠ 바오로 오오츠카 요시나오